

제주도 ‘척박성 담론’의 재검토*

김석준**

- I. 머리말
- II. 척박성 개념의 재검토
- III. 제주도 자연의 척박성 수준에 대한 재검토
- IV. 제주도 척박성 담론 형성의 정치경제학적 배경
- V. 결론과 제안: 척박성 담론을 넘어 풍요의 담론으로

국문요약

이 글은 제주도의 척박성 담론의 실체와 문제, 형성 배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 탐색적이고 시론적 수준이지만, 제시된 반론과 반증들은 이 섬 제주가 결코 척박했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재도 그럴 수 있음을 말해준다. 오히려 풍요의 섬 제주라고 불러야 더 정확하다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척박하지만 아름다운 섬 제주가 아닌 풍요롭고 아름다운 섬 제주를 위한 담론 형성 작업과 연구들이 새로이 시도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결론으로 척박성 담론에 기댄 개발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이른바 풍요의 담론에 의한 새로운 생태주의 패러다임을 구축해나가자고 제안한다.

주제어: 제주도, 척박성 담론, 생태주의 패러다임, 풍요의 담론.

* 이 논문은 2015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016년 12월 16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주최 『‘척박(瘠薄)’ 담론의 재검토』 세미나에서 초고가 발표된 바 있음.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 머리말

제주도에 관한 역사적 자료나 최근의 연구문헌, 심지어 공공기관이나 관광업계의 안내책자 등에서도 별다른 의심없이 회자되는 신화가 하나 있다. 제주도는 척박하다는 신화이다. 제주사회의 구조, 그 문화의 성격이나 지역정체성(identity of region), 제주사람의 기질(ethos)도 이 섬의 척박함에 조응하면서 형성됐다고 한다.¹⁾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척박한 섬 제주라는 담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아마도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 그 이면에 것처럼 혹독한 메마름과 삼재(三災: 바람, 물 가뭄의 재해)의 조건이 덧씌워져 있다고 믿어지기에 이 섬 특유의 풍광은 그만큼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척박하지만 아름다운 섬 제주. 이제 이 타이틀은 하나의 상식으로 굳어져있는 것 같다. 누구도 이에 문제제기할 필요가 없는 정설이자 진리인양 여겨진다.

척박한 섬을 일구며 모질고 어려운 삶을 꾸려온 제주사람들. 전해져 오듯 보통이상의 검약(‘조냥’)과 근면함, 도전하는 개척정신 없이 이 삼재의 섬에서의 생활은 불가능했으리라. 이 또한 일반화된 학술적 지식이 대중화된 상식이다. 제주사람들이 이런 척박성 담론 속에서 자신과 이 섬을 정체화(identify)해왔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척박한 섬이기에 제주도는 미래의 풍요를 담보로 변화해야 한다는 명제, 이 명제의 설득에 제주사람들의 그와 같은 자기정체화(self-identification)는 저항보다 수용을 선택하게 만든다. 아름답지만 척박한 탓에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슬로건, 이전의 어떤 시기, 어떤 상태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욱 풍요로운 섬으로 개발되어야만 한다는 캐치프레이즈, 풍요로울 수만

1) 관련 연구들의 사례 중 몇만 들면, 김태욱 외, 「제주인, 제주도 정신」, 『제주도』 75집, 1979, 34-81쪽; 제주도, 『제주도민의 삼무정신』, 1986; 송성대,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문화, 1996; 김항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신행철, 『제주사회와 제주인』,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4; 최병길 외, 「제주 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제주도연구』 제15집, 제주학회, 1998, 113-152쪽; 이창기,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 도전·적응·초월의 메카니즘」;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 1995, 398-416쪽; 조성운, 「제주인이 문화정체성」;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2』, 한울, 1998, 271-290쪽.

있다면 사안에 따라 아름다움이 일부 훼손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기위안까지, 척박한 섬을 일구어온 제주사람들의 자기정체화는 드디어 지역개발의 신념으로 승화되어 재정체화되고 제주섬의 여기저기에는 거침없는 삽질이 가해진다. 무엇보다 1960년대 이후 제주도의 현대사는 여기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다.

1960년대 이후 제주도가 겪은 변화는 일종의 환골탈태의 과정이었다. 60년대부터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개발사업이 중앙정부 주도하에 관광업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왔다.²⁾ 최근에도 관성처럼 지방정부의 이런 방향의 정책집행이 여간 아닌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산업구조와 사회 여러 부문의 변화에 더해 자연환경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제주도의 척박성 담론이 이 과정을 이끈 개발논리의 주요 전제이자 토대로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제주도의 자연은 아름답지만 척박한 탓에 종래의 1차 산업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거니와 관광업과 같은 3차 산업을 통해 새롭게 개발해나가야 한다는 설득은 매우 효과가 컸을 뿐더러 결정적이었다. 이로써 이 섬의 산과 오름과 해안, 꽃자왈들이 파헤쳐지고 30여 개에 가까운 골프장들이 대신 들어서게 된다. 많은 토지가 리조트나 각종 관광관련 시설물 등에 편입되고 이들을 연결하기 위해 숲과 들판을 토막 내며 널찍하게 잘 뚫린 도로들이 거미줄처럼 포장된다. 이른바 관광산업을 꽃피우기 위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에는 여기저기 인공이 가해져 성한 데를 찾기 어려워진 것이다.³⁾ 60만을 넘어서는 인구, 치솟는 부동산가격, 대도시나 다름없는 교통과 쓰레기대란에 전국 수위의 범죄발생률 등등⁴⁾ 개발로 풍요로워지리라 희망했던 섬

2) 이 시기 제주도 개발의 내용과 방향 등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 다음이 특히 참조된다. 이상철,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행철 외, 『제주사회』, 한울, 1995, 273-311쪽.

3) 환경파괴와 개발이익의 도외유출 등등 지역개발의 부정적 효과들이 드러나면서 그로 인한 도민들의 반발도 커져간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이상철,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2』, 한울, 1998, 99-136쪽.

4) 구태여 주석을 달 필요도 없이 최근 몇 년간의 도내 신문과 방송 등 뉴스 미디어들을 검색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계속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간의 지역개발과 제주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재정

의 현재가 결코 밝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린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다. 만일 제주도가 아름답지만 척박한 섬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름답고도 풍요로운 섬이었고 여전히 그럴 수 있다면 어떨까? 척박한 섬 제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어떤 역사적 필요에 의해 구성되고 재구성되어 온 하나의 허구적 신화일 따름이라면 너무 황당한 주장일까? 이 섬의 풍요로움이 그 과장된 신화적 담론에 의해 은폐되고 심지어는 말살되기조차 해왔다면 지나친 상상이고 억지일까? 게다가 척박하지 않은 풍요의 섬에서 제주 사람들의 애환과 근면함, 개척정신이라니? 그 역시 역사적 왜곡이 일정하게 개입된 담론이자 정체성이기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규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한다면 이 또한 어이없는 공상일까?

이 글은 일단 이런 질문들과 씨름해보려고 작성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질문들에 대한 현실적합한 해답을 성급히 구하기보다 왜 이런 의문을 품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시론적으로 밝히는 데 치중하고자 한다. 당연시되어온 제주도의 척박성 담론에 대해 당연치 않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논쟁 가능성과 대안 담론 구성의 실마리를 탐색적으로나마 제공해보자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일종의 방법론적 다원화 전략(strategy of multiple triangulation)을 취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온오프라인의 미디어와 각종 문헌자료들, 심지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기왕에 수행한 면접과 관찰들을 포함하여 가용한 다양한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할 것이다.

II. 척박성 개념의 재검토

사전적 의미로는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몹시 메마른 경우를 척박하다고 풀이한다. 이 경우 척박함은 거칠다, 메마르다, 교박하다, 토박하다

향을 위한 토론이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되는 시기 곧 위기의 시기임을 경고하는 증후들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이 글도 그런 경고에 대한 반응이자 위기의식의 발로인 셈이다.

등을 유의어로 두고, 반의어로서 걸다, 기름지다, 비옥하다 등을 마주하게 된다. 요컨대 척박하다는 말은 특정 지역 토지가 식량자원이 되는 작물생산에 적합하지 않음을 뜻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⁵⁾

척박하다는 서술은 또 토양학 연구에서 토양의 비옥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의 농지를 지칭할 때도 활용된다. 토양의 비옥도는 해당 토양의 물리 화학적 조성과 영양소 함유량, 그리고 투수성 등의 성질과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지형적, 지질적,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지표(indicator)들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으면서 작물생산에 적절하고 유용하게 작용하느냐의 여부가 비옥도 수준을 결정하는 실질적 척도가 된다.⁶⁾ 때로 비옥도 곧 지력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 노력이 가해지기도 한다. 퇴비나 화학비료의 시비, 용수공급을 위한 관개시설사업, 화전법을 포함한 휴경이나 그루같이 농법 등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래도 농업생산성에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버려져도 무방한 쓸모없고 척박한 땅이라는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의 척박성 개념은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 전체보다 농업생산의 기본 수단인 토지의 성격을 밝히는 데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제주도에 관한 한 토지의 비옥도를 것처럼 농지에 집중하는 전문화된 토양학적 관점에서만 판단하게 되면 척박하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오래 전 퇴적과 용기에 의해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비옥한 비화산회토 지대가 제주도에서도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섬의 북서쪽 해안을 따라 띠처럼 이어진 그리 넓지 않은 면적을 차지할 뿐이다.⁷⁾ 이따로 농업중심적인 종래의 토양학적 관점에서는 제주도의 토지가 대체로 척박하다고 판별됨이 마땅한지도 모른다. 이런

5) 척박의 의미와 어원 등에 대해 잘 정리한 글로 김치완, 「제주—섬 정체성과 ‘척박성’ 담론」, 『‘척박(瘠薄)’ 담론의 재검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주최, 탐라문화세미나발표문집, 2016, 25-30쪽; 조성식, 「척박함...」, 『‘척박(瘠薄)’ 담론의 재검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주최, 탐라문화세미나 토론요지(프린트 자료), 2016.

6) 정덕영, 『토양과 생활』,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이완주, 『흙, 이는 만큼 배운다』, 들녘, 2012.

7) 현해남, 『제주 토양 환경을 알면 제주의 사회문화를 안다』, 한국환경농학회 발표자료, 2011.

결과는 한반도 일부의 비옥한 논농사지대들과 상대평가를 할 때 더 확실해질 수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사회에서는 농지의 비옥도 다시 말해 작물재배의 적합성 여부를 주로 논농사와 관련시켜 평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쌀을 주곡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논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조건의 토지는 기름지고 비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으로 분류하게 된다. 적당량의 물 공급이 긴요한 논농사이기에 하천을 낀 평야지대가 기름진 옥토로 간주되는 사례가 많고 이런 지역은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게 만드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오랜 세월 논농사 중심의 농업사회를 지내오면서 이런 유형의 토지관은 어떤 점에서 우리 문화의 기층을 형성하고 한국인들의 자연관과 사회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식틀로 기능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이런 인식틀에 의하면 농업생산에 관한 한 척박한 제주도라는 표현은 절로 나오기 마련이겠다. 농지라고 해봐야 육지부의 산간지역처럼 밭농사 가능지가 거의 전부이고 논농사 가능지는 극소수만 보유한 섬이라는 점에서 이는 부정하기 힘들다. 아마도 척박한 섬 제주라는 표제가 그렇게 널리 유포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런 논농사중심의 인식틀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런 질문들을 추가하고 싶어진다. 제주도 농업용지의 성격에 대한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제주도의 자연환경 전체, 아니 제주도 전체를 척박하다 낙인찍는 것은 너무 지나친 단순논법이거나 무리한 추론은 아닌지? 혹 이는 전통적 논농사중심 사회의 인식틀이 직간접적으로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작동하면서 빚어내는 일종의 스테레오타이핑(stereotyping)이자 편견은 아닌지? 다시 말해 어떤 전체의 한 구성부분에 대해서만 참인 지식을 그 전체의 다른 구성부분들 각각에서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이들 구성부분을 포함하는 전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참일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데서 오는 오류는 없는지?

사실 특정 지리적 공간의 자연은 하늘과 땅과 물이라는 세 요소와 거기에 분포하거나 서식하는 각종 동식물들과 이들과 맺어진 인간과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그 공간이 섬이라고 할 때도 그 공간(의 자연)과 인간이 어떤 성격의 관계를 실제로 맺고 있는

지를 파악하려면 이 세 요소 각각과 해당 동식물들까지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이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해보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라는 섬에 대한 척박성 담론을 서술해낼 때도 이는 마찬가지여야 할 것이다.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척박성 여부는 그 지역 자연 전체와의 연관 하에 판단가능하게끔 광의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토양학과 논농사중심적 인식들에 의한 제주도에 관한 서술은 그렇지 못하다. 부분에 대한 언어로 전체를 동일한 것으로 묘사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해설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장과 비약과 허구가 연루된다. 나아가 토양학과 논농사중심적 인식들에 의한 제주도 자연의 일부분에 대한 서술 곧 제주도 토지에 대한 척박성 규정들도 사실은 더 엄밀히 그 진위를 따져보아야 한다. 시각을 달리하여 다른 변수를 도입하게 되면 토지의 비옥과 척박의 문제마저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특정 시공간의 인구규모와 밀도를 고려할 수 있다.⁸⁾ 특정 토지의 토양학적 비옥도의 점수가 같더라도 단위면적당 거주하며 생존해야 하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함은 새로이 상대화될 수 있다. 이는 특정 시공간의 척박성 여부를 판정하는데 일종의 상대주의적 관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제 이런 관점을 수용하면서 척박성의 개념을, 인간의 생존을 위한 특정 시공간에서의 자연의 역할과 그 기여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중 하나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해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그 또는 그들과 관계된 자연으로부터 의식주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나 충족시키며 살고 있는지 등을 지표로 삼아 해당 시공간의 척박성의 수준을 판별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추리가 타당하다면,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새롭게 접근해볼 수 있다면 제주도의 척박성 신화도 이전과는 다르게 재조명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8) 이외에 해당 인구가 보유한 지식과 기술, 외부와의 교역망과 교환가능성 등의 변수도 개입시켜볼 수 있다. 양정필, 「제주도 척박성 담론 토론문」, 『‘척박(瘠薄)’ 담론의 재검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주최, 탐라문화세미나발표문집, 2016, 16-30쪽 참조.

III. 제주도 자연의 척박성 수준에 대한 재검토

흔히 제주도를 식물자원의 보고라고 한다. 한라산의 높낮이에 따라 분포된 식물상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보다도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⁹⁾ 다른 말로 임산업의 적지이자 그 본거지가 될 수 있는 자질이 뛰어나다고 할 만하다.¹⁰⁾ 요즘 다른 지역에서 입도하여 도내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는 올레꾼들은 제주도의 산과 들에서 고사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철따라 갖가지 나물과 산야초, 식용과 약용의 뿌리와 가지와 잎과 꽃, 열매들이 스스로 자라나고 맺히는 그야말로 풍요로운 산과 숲의 제주도라고 한다.¹¹⁾

그렇다면 한라산 자락에 무리를 이루는 오름들, 그리고 그와 어울려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지대는 또 어떤가. 고려 말 원나라가 설치해서 운영했던 탐라목장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소와 말 등의 목축의 적지임은

9) 제주도에 대한 식물학적 관심과 연구가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00년대 초부터 의 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특징은 학술적으로도 입증되어있다. 제주도, 『제주도지』(1), 1993, 201-260쪽; 김문홍, 『제주식물도감』(증보판), 제주도, 1992.

10) 예초 한라산에는 아름답리 거목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때 원나라의 궁궐 건축이나 일본정벌을 위한 선박 건조 등에 무수히 많은 향장목(늑나무)이 잘려나갔다는 기록이 있고, 그 후 조선조의 화재 등에 의한 남벌과 일제강점기의 조직적 산림훼손, 4·3의 피해 등으로 대다수의 거목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한다. 김경주, 「고고자료로 살펴본 원과 탐라」, 『탐라문화』 5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129-160쪽; 강정효, 「강정효의 한라산 이야기 (25): 사라진 아름답리 나무들」, 제민일보, 2013년 3월 27일자 기사.

11) 그런데 대부분의 제주 토박이들은 제주의 산과 들에 지천으로 있다는 식용과 약용 임산물들에 대한 지식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는 평을 듣는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런 지식이 필요한 환경이나 일상과는 얼마간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를 태면 쉽게 채취가능하며 조리도 손쉬운 풍부한 해산물이 육지부의 야생 임산물이 했던 대안식재료나 구황작물의 기능을 대신해 준 덕분이 아니겠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또는 집주변 텃밭(우영)에서 약간의 관리만으로도 비교적 풍부히 수확할 수 있었던 채소류나 일부 잡곡류의 혜택도 무시 못 할 것 같다. 우영과 제주사람들의 식생활에 대해서는, 현혜경, 「제주지역 ‘우영’의 전통과 현재적 지평에 대한 연구」, 『탐라문화』 3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413-468쪽 참조.

이미 널리 알려진지 오래이다. 이 역시 제주 섬 자연의 풍요로움을 과시하는 경관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섬의 민초들에게 목장의 존재는 그 과실을 향유하기보다 오히려 수탈과 고난의 뼈아픈 경험만 남겨두게 만든 역사적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¹²⁾

제주도는 지표수가 풍부하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논농사는 도내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제주도의 꽃자왈지대는 늘 습하며 제주도 지하수의 여과장치이자 각종 생물의 서식지로도 유명하다. 과거에는 화전을 했던 사례도 있지만 ‘경작이 불가능하여...버려진 땅’¹³⁾으로 취급되기도 했다는 꽃자왈은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비교적 낮은 곳에서부터 중산간까지 군데군데 넓게 분포해 있다. 한라산과 꽃자왈, 오름과 숲에 서식하는 동물상은 멧돼지와 사슴, 노루, 오소리 등에 각종 양서류가 있고 평을 포함한 다양한 조류 등등이 더해져 무척 풍성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목축과 함께 수렵도 제주도의 주요 산업이자 생업의 하나였다. 사냥바치와 총바치 등과 같이 수렵인들을 지칭하는 산업적 직업적으로 특화된 방언도 존재할 정도였다. 이러한 수렵업 또한 충분치 않았던 농업생산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풍부한 동식물상은 인근 주민들의 의식주 꾸리기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¹⁴⁾

제주도에 드넓고 비옥한 논농사 평야지대는 없지만, 척박한 땅과 동의어처럼 인식되어온 꽃자왈이 그와는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주민들에

12) 강만익, 「고려말 탐라목장의 운영과 영향」, 『탐라문화』 5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67-103쪽; 권인혁·김동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1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8, 179-198쪽;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수취제도와 특징」, 『탐라문화』 2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4, 101-130쪽; 강만익, 『일제시기 목장조합 연구』, 경인문화사, 2015; 김동진·강만익,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13) 제주꽃자왈도립공원 홈페이지, (<http://jejugotjawal.or.kr/default/index.php?cid=7>), 2016. 12. 08. 다운로드.

14) 정광중, 「꽃자왈과 제주인의 삶」,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33, 제주교육대학교, 2004; 채민일보꽃자왈특별취재반, 『제주의 허파 꽃자왈』, 도서출판 아트21, 2004; 윤용택, 「꽃, 자왈, 꽃자왈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제주도연구』 41, 제주학회, 2014, 27-59쪽.

게 정말 많은 것을 베풀어왔다고 할 수 있다. 농경지 개념보다 그 대안 또는 대체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 또한 척박이 아니라 비옥하고 풍요로운 제주도의 자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최근 이 곳자왓 지대의 무성한 동식물상이 척박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의미로 주목받고 있거니와 여기에 부여되는 의미변화를 제주도 자연에 대한 인식변화의 시금석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 제주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생산비중이 큰 농작물들이 적지 않다. 독점적인 감귤류가 그렇고 각종 채소류나 밭작물 중에서도 그런 지위를 가진 작물들이 여럿 있다. 예를 들어 요즘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는 브로콜리는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제주농업에서 담당한다. 당근도 70%, 감자 60%, 양파와 양배추는 각각 38%, 마늘 15% 등등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열거된다.¹⁶⁾ 작물에 따라서는 제주도가 국내 어느 농업지역보다도 생산성이 높을 수 있다는 증거이다. 주식인 쌀농사의 부적지라 해서 다른 농작물 재배의 적합성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척박하다고 판정해도 괜찮은 것은 아닌 듯싶다. 그런 일은 앞서 지적했듯이 논농사를 주로 하는 육지부 곧 중심부의 스테레오타이핑과 편향된 사고방식이 자아낸 오류라고 규정할 수도 있겠다.¹⁷⁾

제주도를 둘러싼 바다는 한반도의 내륙지방이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풍요를 선물한다. 별다른 도구나 경작의 어려움 없이 채취하고 낚아내기만 하면 그 상당수는 바로 식용이 가능한 바다의 산물들.¹⁸⁾ 어부에

15) 고석형, 「제주도 곳자왓의 토양특성」,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환경농학회, 2015, 219-234쪽.

16) 현해남, 앞의 글.

17) 지금은 과학기술과 지식의 발달로 논농사와 같은 전통적 토지이용방식만을 준거로 토지의 성격을 평가할 경우 문제가 없지 않다. 그런 인식틀로는 척박하다고 해야 할 토지도 유용한 농업생산수단으로 얼마든지 변모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나 할까.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의미를 부여할 때도 됐다고 본다. 척박한 토지의 제주 섬이라는 담론의 의미가 더욱 더 정확하게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8) 한국전쟁 당시 화가 이중섭은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놀며 개와 각종 해산물을 채취하는 모습을 그린 은지화 작품들을 제주로 피난 와서 거주하는 기간에 남기기도 했다. 제주 바다가 베푸는 풍부한 해산물들이 없었다면 이 가난한 화가의 가족들은 아마도 무척 힘든 삶을 근근히 이어가기도 쉽지 않았을지 모른다(최열, 『이중섭 평전: 신화가 된 화가, 그 진실을 찾아서』, 들베개, 2014). 이런 의미에서 이

게 바다는 퍼 담기만 하면 되는 쌀독과 같다고 한다. 이 비유를 빌리지 않더라도 제주도의 바다는 결코 척박하지 않다.¹⁹⁾ 해녀의 일을 포함하여 노동의 성격이나 식량화의 방법에서도 이 섬의 수산업은 전통적이라 해서 육지의 농사일에 비해 여러 면에서 훨씬 더 힘겹거나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서해안 지역처럼 개펄이 없다고 해서 척박한 바다로 폄하해서는 안될 일이다.²⁰⁾ 하지만 풍요로운 바다가 오히려 봉건적 수탈의 빌미를 주고 이 섬 민초들에게는 고역과 고통의 공간으로 변한적도 있었다는 사실은 지적해두어야 한다.

인구 60만을 넘어서는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인구가 최대 10만 미만으로 기록된 조선조의 제주²¹⁾ 아니 그보다 인구가 훨씬 더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저 멀리 탐라국 제주섬의 자연은 과연 척박했다고 해야 할까? 그 소수 인구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아가기에 당시의 제주도의 산과 들과 바다가 그토록 부족하기만 했을까? 그래서 언필칭 한반도의 어떤 지역보다 더 가난하고 험벗은 주민들이 어렵사리 삶을 이어가야만 했을까? 아니 그 반대방향의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다. 예컨대 당시에는 지금과 동일한 지리적 공간의 자연을 매우 적은 수의 인구가

섬을 에워싼 바다는 지독한 가난조차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사회복지 기제로도 기능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잘 알려진 문구를 상기해보면 어떨까 싶다.

- 19) 신화시대 또는 고대 탐라국에서부터 “제주에 있어 바다는 풍요의 근거였고, 많은 신들이 오는 길목이었고,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던 소통의 장”이었다. 허남춘,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 『탐라문화』 5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7-42쪽.
- 20) 최근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물숨』에서, 왜 그렇게 바다가 좋으냐는 질문에 86세의 해녀 김모씨는, “바다에는 공짜, 바다에는 들어가지만 하면 몸은 힘들지만 돈이 나오니까 바다를 좋아할 수밖에”라고 답한다(고희영 감독, 2016년 9월 29일 개봉). 바다는 노다지라 불려야 할 풍요의 대명사가 아닌가 한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제주의 바다는 우리가 더욱 더 잘 지키고 가꾸어야 할 이 섬의 풍요로운 자연의 하나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 21) 제주도, 『제주도지』(1), 제주도, 1993;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2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53-71쪽; 강문규, 『제주 문화의 수수께끼』, 도서출판 각, 2006; 한금순, 「17세기 제주도 여정의 성격: 군역 부담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5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83-114쪽 참조.

차지한 덕분에, 생산기술의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그 때 그 때 한반도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더 풍족하거나 최소한 자족적일 수는 없었을까? 그래서 흔히 말해지는 과거의 공궁합이란 자연의 조건 탓이라기보다 다른 요인 곧 지난 역사 속에서 살피지는 정치경제학적 권력관계의 효과는 아니었을까? 이 섬 민초들의 역사적 경험이자 한반도 어느 지역의 민중들도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로서 피지배자들에게 부과됐던 각종 부역과 조세와 공물에 탐관오리들의 탐욕이 더해진 결과는 아니었을까? 만일 이런 정치경제학적 관련이 제주도 척박성 담론을 형성하는 데 미친 영향을 드러내어 벗겨낼 수 있다면 제주도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또 어떻게 인식되거나 서술되어야 할까?

IV. 제주도 척박성 담론 형성의 정치경제학적 배경

이미 서론에서 척박성 담론이 개발주의 담론의 전제이자 토대로 활용됐음을 언급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제주도개발전략에 요구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화를 위해 이런 담론적 설득은 매우 필요했고 성공적이었다 할 수 있다. 바로 앞 장에서 제주의 자연이 풍요롭다는 반증들을 제시했지만 한편으로 결핍과 빈곤, 다른 한편 검약과 근면을 의미하는 어휘들로 채워진 척박성 담론은 여전히 유력한 언어로 제주사회와 그 너머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접근해보면 이런 척박성 담론에 정치경제학적 형성 배경이 뚜렷함을 여실히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반도와의 정치적 관계가 맺어지는 양식에 따라 척박성 담론의 내용도 일정하게 변화해왔을 것이다. 독립적인 탐라국에서 반도의 왕조나 정치세력에 변방의 섬으로 복속하게 되면서부터 척박한 섬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된다.²²⁾

22) 독립적인 탐라국에서부터 반도와 중국, 일본 등과의 교역, 그리고 반도의 왕조(고려)의 일개 군현으로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 과정과 담론 등에 대해서는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신서원, 2000)와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등을 참조.

식민지를 지배했던 제국들은 자신들의 침략을 미개와 야만을 계몽하여 문명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한다. 식민지인들이 무지몽매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핑계도 낸다.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원들을 개발하면 식민지인들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등 호혜적이라고 유혹하기도 한다.²³⁾ 식민지인들은 여러모로 부족하며, 그래서 독자적 생존이 어렵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놓아 지배-종속관계를 영속화하려는 담론적 접근인 셈이다. 제주도의 척박성 담론의 형성과정에도 이와 유사한 의도가 스며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진다. 탐라국 이후 이 섬을 복속시켰거나 그 관계를 이어받은 반도의 왕조나 정치세력들에게 그러한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가 곧 그들과 제주 섬의 관계나 다름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걸핏하면 변방의 민란들로 골머리를 썩인 봉건왕조들에게 이런 담론적 지배는 필수적이었다 할 수도 있다.

중앙과 변방의 정치적 주종관계를 유지해야 이득을 볼 수 있는 변방

-
- 23)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주도가 부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자원을 매우 많이 간직한 조선의 보물창고라는 인식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한일강제병합을 시도하던 시기의 일본인들 사이에서 더 크게 공유된 것 같다. 이들은 조선을 식민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면서 유독 제주도의 풍요로움에 눈독을 들여 강제병합 이전에 이미 제주도 경영계획안을 내놓기도 한다. 어쨌든 제주시 우당도서관이 1998년에 편집·번역하여 출판한 『조선의 보고 제주도안내(朝鮮의 寶庫 濟州道案内)』(원저자는 靑柳綱太郎으로 1905년 출간됐다)에서의 다음을 인용해보면 우리의 논제와 관련,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제주도는 한국(인용자 주: 한반도의 오기인 듯. 이하 한반도로 통일) 남쪽 전라의 해상에 자리하는 한 섬으로서 수륙의 생산물이 적잖고 이 때문에 주민들은 그 근면함이 본토인들의 게으름과는 전혀 같지가 않다. 생각건대 우리(일본) 식민지 중 적당한 하나의 부원(富源)이다. 만일 이 부원개발에 있어 알맞은 방법을 얻으면 생산물이 더욱 늘어나고 주민은 더 부지런해질 것이다. 이는 단지 이 섬 주민의 행복을 더 하도록 하는 길일뿐 아니라 일·한 양국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근거이다(윗 책 11쪽).”는 本山彦一의 머리말에 더해 “한반도는 이제야말로 우리 세력 및 이익의 두 권역 안에 들어왔다. 천재일우의 호기를 만난 우리 일본은 마치 ‘위터루’ 전승 뒤의 영국처럼...(중략)...한반도를 적응시켜 서서히 동양의 패권을 장악하는 대계가 없어서야 되겠는가...(중략)...우리 일본인들은 대거 몰려가서 반도의 부원을 개척하여 경제의 팽창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선 여기에서 한국바다에 있어서의 하늘이 준 대보고(大寶庫), 제주도를 향해 이주적 어업의 급무를 말하려는 것이다(윗 책, 60쪽).”고 한다.

의 유력자들의 입장에서조차 척박성 담론은 유용하다. 제국들의 식민지 침략이나 개척의 논리에 동조적인 일부 식민지 지식인이나 기득권층들에서도 그와 유사한 행태를 볼 수 있다. 중앙 또는 대국의 힘에 편승하거나 그 보호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이 섬의 지배집단이나 유력자들에게 척박성은 복속과 종속, 그리고 기득권의 유지를 위한 합리화에 쓸모가 컸을 것이다. 약간은 과도하게 비유하자면, 마치 친일파의 합병논리에 조선을 그렇게 모멸적으로 표현했던 것을 떠올려도 좋겠다.²⁴⁾

특히나 봉건적 상황에서 본국 또는 중앙-수도 또는 서울과 멀리 떨어져 왕래가 힘든 변방 내부에서 전개되는 정치경제학적 착취의 위계도 척박성 담론을 강화시킬 수 있다. 제국 또는 중앙의 파견관-예를 들면 제주목사-은 세금이나 공물 등을 본국이나 중앙으로 보내야 할 때 관할 지역의 생산성이나 소출이 적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받게 되면 그 양이 적어도 무탈하다. 하지만 초과분은 은밀한 유용이나 착복거리가 될 수도 있기에 척박성 담론은 그들의 입장에서조차 마다할 수가 없다. 중앙파견관과 비슷하게 예컨대 조선조의 향리나 아전과 같은 지방관리나 호족들 또한 척박성 담론을 지지해야 할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중앙의 파견관에게 적게 주고 자기가 관리-지배-하는 지역 경작민이나 주민에게는 더 받아도 된다. 그런가 하면 이 착취위계의 최하층에 있는 지방 곧 이 섬의 민초들에게 척박성 담론은 일종의 저항과 방어, 또는 자기 생존을 위해 피치 못하게 선택해야만 하는 언어의 구실을 하게 된다. 생산물을 적게 착취당하기 위한 방책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척박한 토지 탓에 소출이 적다는 변명이야 말로 봉건시대 민초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보호막이자 저항의 마지막 보루라 아니할 수 없다.²⁵⁾ 이로써도 건딜 수 없는 가혹한 수탈은 섬을 떠나는 유민을 양산하거나 그마저 여의치 않은 시기에는 민란의 직접적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²⁶⁾

24) 한말 친일파의 성격과 합병논리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 김도형, 「한말 친일파의 등장과 문명개화론」, 『역사비평』 통권 25호, 역사문제연구소, 1993, 126-137쪽.

25) 박찬식, 「19세기 제주 지역 진상의 실태」, 『탐라문화』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6, 255-272쪽; 권인혁·김동진, 앞의 글; 양진석, 앞의 글 등만 보아도 이런 추론이 가능해진다.

26) 이영권, 「15~17세기 제주유민의 사회사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

이상에서 척박한 섬 제주라는 타이틀은 제주의 자연 전체에 대한 총체적이고 실질적 접근을 통해 얻어진 실체적 참이거나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적 관계의 구성과 그 변화에 따라 담론화되고 변형되어온 과장과 허구의 산물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제주의 자연과 그 생태 전체가 다 풍요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에서 논증한 바, 척박함은 이 섬의 극히 일부분을 지칭하는 어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지식과 기술의 발달로 그나마도 척박이 아닌 비옥과 풍요의 터전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여지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

V. 결론과 제안: 척박성 담론을 넘어 풍요의 담론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제주도의 척박성 담론의 실체와 문제, 형성 배경 등을 검토해 보았다. 제주도의 자연이 실제로는 전혀 척박하지 않고 풍요로우며 애초부터 그랬다는 사실이 검증될 때 이 담론은 그 바탕부터 무너지리라 은연중에 가정해보았다. 탐색적이고 시론적 수준이지만, 앞의 III장의 반론과 반증들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과 달리 이 섬 제주가 결코 척박했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재도 그럴 수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쯤 오히려 풍요의 섬 제주라고 불리어 정확하다는 주장에 더 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척박하지만 아름다운 섬 제주가 아닌 풍요롭고 아름다운 섬 제주를 위한 새로운 담론 형성의 작업과 연구들이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섬의 특징은 개방과 고립의 변증법적 통합체라는 데 있다. 개방의 끝은 고립이고 고립의 마지막은 개방이다. 제주도에 관한 한 척박성 담론은 개방의 극대화를 지향하도록 늘 우리들의 등을 떠밀어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개방의 극대화는 개발의 최대화를 동반하며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 섬을 부단히 파괴해왔다. 요즘은 차라리 고립의 미덕이 그렇게도 그리워진다. 그리하여 제주도를 오가는 일은 아주 힘들게, 하지만

제주도에 일단 오기만하면 너무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겠냐는 다소 과격적인 제안도 마다하지 않게 된다.²⁷⁾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풍요롭고 아름다운 에코토피아(Ecotopia) 제주를 복원하는 기획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척박하기보다 풍요롭기에 더욱 소중하고, 소중하기에 함부로 대하기보다 더욱 더 아껴야 하는 아름다운 섬 제주를 다시 만들어 나가야하지 않겠냐는 말이겠다.²⁸⁾ 이를 위해 척박성 담론의 동반자였던 개발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이른바 풍요의 담론에 어울리는 새로운 생태주의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면 어떨까?²⁹⁾ 후속 연구를 기약해본다.

27) 목표로 삼아 오가는 일이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도달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장소와 그 시간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가 있다. 히말라야의 고산을 등반하는 이들은 정상에 고고도의 경관과 참기 힘든 날씨 외에 아무 것도 없음을 잘 알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어렵게 온갖 고생을 마다않고 올라간다. 정상에 올랐다는 그 시간 그 자체만으로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이 행복하다고 한다. 높은 산이 경탄과 찬사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까지는 이유가 이런 것은 아닐까? 제주도를 그렇게 만들어나갈 수는 없을까?

28) 최근 제2공항과 해저터널까지 논의되는 한쪽에서 한라산 입장료 2만원, 일출봉 1만원 징수 계획안이 발표된 바 있다(제민일보, 2016년 12월 15일자 기사 참조). 제주도 자연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이는 한라산과 일출봉이 그만큼 더 소중하며 아껴야 할 대상임을 표방하는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말하려는 풍요의 생태주의 패러다임과 지향하는 바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실 2만원 이상을 받아도 된다고 본다. 단 입산하면 입장료가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소중하게 아끼며 관리를 잘 해야 한다. 히말라야의 소국 부탄의 입국세 징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김찬영, 「부탄의 관광과 관광정책에 관한 고찰: 부탄관광과 제주관광의 비교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제34호, 한국관광산업학회, 2012, 163-181쪽.

29) 개발주의와 생태주의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지만, 제주도의 사정과 관련시켜 토론한 다음도 참조, 김석준, 「제주도의 기후·생태학적 변화와 사회문화변동」, 『인문학연구』 16,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139-169쪽.

참 고 문 헌

1. 저서

- 강만익, 『일제시기 목장조합 연구』, 경인문화사, 2015.
- 강문규, 『제주문화의 수수께끼』, 도서출판 각, 2006.
- 김문홍, 『제주식물도감』(증보판), 제주도, 1992.
- 김동전·강만익,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 김항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 송성대,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문화, 1996.
- 신행철, 『제주사회와 제주인』,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4.
- 이완주, 『흙, 이는 만큼 베풀다』, 들녘, 2012.
- 정덕영, 『도양과 생활』,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제민일보꽃자왈특별취재반, 『제주의 허파 꽃자왈』, 도서출판 아트21, 2004.
- 제주도, 『제주도민의 삼무정신』, 제주도, 1986.
- 제주도, 『제주도지(1), (2), (3)』 제주도, 1993.
- 제주시 우당도서관 편역, 『朝鮮의 寶庫 濟州島案內』(1905), 제주도 우당도서관, 1998.
-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최열, 『이중섭 평전: 신화가 된 화가, 그 진실을 찾아서』, 돌베개, 2014.

2. 연구논문

- 강만익, 「고려말 탐라목장의 운영과 영향」, 『탐라문화』 5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 고석형, 「제주도 꽃자왈의 토양특성」,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환경농학회, 2015.
- 권인혁·김동전, 「조선 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1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김경주, 「고고자료로 살펴본 원과 탐라」, 『탐라문화』 5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 김도형, 「한말 친일파의 등장과 문명개화론」, 『역사비평』 통권 25호, 역사문제연구소, 1993.
- 김석준, 「제주도의 기후·생태학적 변화와 사회문화변동」, 『인문학연구』 16,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 김태욱 외, 「제주인, 제주도 정신」, 『제주도』 75집, 1979.
- 김찬영, 「부탄의 관광과 관광정책에 관한 고찰: 부탄관광과 제주관광의 비교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제34호, 한국관광산업학회, 2012.
- 김치완, 「제주섬 정체성과 ‘척박성’ 담론」, 『‘척박(瘠薄)’ 담론의 재검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주최, 탐라문화세미나발표문집, 2016.
- 박찬식, 「19세기 제주 지역 진상의 실태」, 『탐라문화』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양정필, 「제주도 척박성 담론 토론」, 『‘척박(瘠薄)’ 담론의 재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주최, 탐라문화세미나발표문집, 2016.
-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수취제도와 특징」, 『탐라문화』 2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 윤용택, 「곶, 자왈, 곶자왈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제주도연구』 제41집, 제주학회, 2014.
- 이상철,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 1995.
- _____,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2』, 한울, 1998.
- 이영권, 「15~17세기 제주유민의 사회사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 이창기,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 도전·적응·초월의 메카니즘」,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 1995.
- 정광중, 「곶자왈과 제주인의 」,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제33집, 제주교육대학교, 2004.
- 조성식, 「척박함...」, 『‘척박(瘠薄)담론’의 재검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주최, 탐라문화세미나 토론요지(프린트 자료), 2016.
- 조성운, 「제주인이 문화정체성」,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2』, 한울, 1998.
- _____,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2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 최병길 외,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제주도연구』 15, 제주학회, 1998.
- 한금순, 「17세기 제주도 여정의 성격: 군역 부담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5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 허남춘,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 『탐라문화』 5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 현해남, 「제주 토양 환경을 알면 제주의 사회문화를 안다」, 한국환경농학회 발표자료, 2011.
- 현혜경, 「제주지역 '우영'의 전통과 현재적 지평에 대한 연구」, 『탐라문화』 3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3 신문자료

- 강정효, 「강정효의 한라산 이야기(25): 사라진 아름드리 나무들」, 제민일보, 2013년 3월 27일자 기사.

4 영상자료

- 고희영 감독, 『물숨(Breathing Under Water)』, 2016년 9월 29일 개봉.

5. URL

- 제주곶자왓도립공원 홈페이지, (<http://jejugotjawal.or.kr/default/index.php?cid=7>), 2016. 12. 08. 다운로드.

Abstract

Reconsidering the ‘Sterility Discourse’ on Jeju Island

Kim, Suk-Joon*

The exploratory approach that this paper suggests is that the discourse around Jeju’s natural resources in terms of economic productivity should be reconsidered. In particular, the focus is on the sterility discourse. It might be argued that, even if not having in-depth theoretical support, empirical and historical evidences demonstrate that Jeju Island was never sterile as much as we have commonsensically thought. In this sense, it could be hypothetically argued that the Jeju Island is affluent rather than sterile. Criticizing the sterility discourse and developing an alternative discourse through which we can newly recognize the Jeju Island can represent it as affluent and beautiful island. In reality, since the sterility discourse has provided the excuse for development, a critical reconsideration of it can give a chance for a new ecological paradigm inspired by the affluence discourse.

Key Words : Jeju Island, Sterility discourse, Ecological paradigm, Affluence discourse.

*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 : 김석준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E-mail : ksj001@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6. 12. 26.

심사완료일 2017. 02. 06.

게재확정일 2017. 02. 07.